

AI의 윤리적, 신학적 문제점과 그 활용

2. ChatGPT를 사용하는 사역, 문제는 없을까?



— 목차 —

1. 내가 설교 작성에 AI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2. ChatGPT를 사용하는 사역, 문제는 없을까?
3. ChatGPT를 선한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

2024년 2월 바나 리서치(Bana Group)에서 조사한 바로 미국의 목회자들 가운데 4명 중의 3명(77%)이 하나님께서 AI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고 동의했다. 여러 면에서 AI는 디자인, 기록, 게시물, 영상광고나 교육을 위한 미디어 자료 구축에 편리함을 느끼고 있다. 미래에는 목회자들 대부분이 AI를 사용하려는 의지가 점점 커질 것을 예측한다. 한국의 많은 목회자 역시 AI를 교회 행정에 유용한 도구로 보기 시작했고, 벌써 AI 기반 도구를 현명하게 사용하여 설교 준비나 교회 행정에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교역자가 부족한 교회나 단독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AI 사용이 필수가 될 전망이다.

미국의 목회자들의 89%는 AI를 사용함으로써 관계적 본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사용하고, 그들 대부분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목회자들은 AI가 데이터 보안이나 불평등에도 회의적(95%)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 역시 AI가 교회의 행정적 부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렇다고 목회자가 AI의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역시 필요에 따라 AI를 사용할 수 있지만 윤리적이거나 신학적 문제점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AI의 여러 가지 도구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주로

ChatGPT의 문제점이나 활용을 소개하려 한다. 필자가 적어도 1년 이상 사용해 본 결과 매우 뚜렷한 장단점을 발견했고, 그 가운데는 윤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보았다. 먼저 “ChatGPT를 사용하는 사역, 문제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져 본다. 분명히 ChatGPT는 교회 행정이나 설교 준비에 도움이 되는 조력자가 될 수 있지만, 목사의 창의성, 지혜 또는 통찰력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설교에 활용하기 위해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설교의 영감을 찾기 쉽다. 만약 작은 교회의 목사라면, 아마도 해야 할 일의 대부분을 목회자 혼자서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미리 계획하거나 설교를 몇 주 이상 미리 준비할 때 시간이 절약된다. ChatGPT는 주제나 설교 제목을 제공하여 향후 설교에 대한 영감을 줄 수 있다. 이미 주제나 구절이 생각나면, 그것을 프롬프트에 추가하면 ChatGPT가 시작하는 데 필요한 수십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설교 개요 만들기에도 수월하다. 설교 주제와 구절을 알게 되면 ChatGPT에 제목, 부제목, 요점을 포함한 설교 개요를 제공하여 생각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설교가 간소화되어 더 나은 흐름과 구성을 갖게 된다.

시기적절한 교육 자료를 만들 때도 유용하다. 요점

이나 진실을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아마 스토리 텔링일 것이다. 청중은 이야기와 일화를 좋아한다. 하지만 매주 사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교육 자료나 예화를 생각해 내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때로는 오류가 있는 자료를 진짜인 양 사용할 수도 있다. ChatGPT는 훌륭한 교육자료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교육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영상광고를 만들 때 AI 도구를 사용하여 편집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AI는 도구일 뿐이지 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 목회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영적 만남’의 행위이다. ChatGPT는 방대한 자료로 학습되고 훈련되어 엄청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인간 상호작용과 목회적 돌봄을 대체할 수는 없다. 목회자는 개인에게 필요한 영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훈련과 은사를 가진 독특한 사명자이기 때문이다.

처음의 질문에 답한다면, 당연히 AI를 교회 사역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AI가 제공하는 정보는 완전하지 못하기에 목회자는 항상 청중과 문화를 보면서, 그리고 성경의 지침을 확인하면서 청중에게 적절한 내용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AI는 질문자가 던지는 프롬프트에 답을 줄 때 질문자의 성향을 잘 알게 된다. 따라서 몇 번 사역에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는 비슷한 유형으로 답을 내놓게 된다. 그것이 오히려 위험하다면 매우 위험하다. 다른 위험은 표절이다. ChatGPT는 창작하는 도구가 아니라 다른 자료들을 종합해서 내놓기에 표절의 위험이 크다. AI는 양면이 있다. 때로는 교회 사역에 유익하지만, 때론 위험할 수 있어서 가려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최종인 목사

평화교회



월간목회 5월호, ‘나는 청지기입니다’ 특집

‘청지기라는 정체성’과 ‘그에 합당한 삶’ 주제

월간목회 5월호가 ‘나는 청지기입니다’라는 주제로 특집 기사를 마련했다.

재물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전 영역에서 깊이 연결된 주제다. 그러므로 재물에 대한 성경적이고 바른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이 말하는 재물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한 소유자가 아닌 ‘청지기’로 부르셨고, 맡기신 재물을 주님의 뜻에 따라 활용하길 원하시는 것이다.

즉 돈의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누구를 위해 흘려보내는가에 있다. 그런 점에서 지출은 곧 신앙의 고백이며, 투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의 연장선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재물이 가지는 힘은 매우 막강하다.

이에 탐문의 유혹이 강한 시대일수록 탐심을 경계하고 지혜로운 경제관을 회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월간목회’ 2025년 5월호에서는 ‘청지기라는 정체

성’과 ‘그에 합당한 삶’을 주제로, ‘부’와 ‘재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기 위한 깊은 통찰과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특집기사로는 다니엘 오 작가의 ‘약속하신 부를 맡은 청지기: 신앙과 경제의 동행’, 손성찬 목사의 ‘그리스도인의 지출’, 유재혁 목사의 ‘7가지 성경적 투자 원칙’, 조성환 교수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다’, 양정모 교수의 ‘‘탐문’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



김광주 대표의 ‘성경적 재정 원리와 재테크’가 실려있다.

건강 칼럼

노화를 늦추기 위한 7가지 방법

노화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변화로 모든 신체 영역에서 서서히 진행된다. 필멸의 존재인 인간에게 노화는 숙명이다. 하지만 노화의 진행 속도는 개인의 노력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미국 건강의료 전문 매체 ‘웹MD’(WebMD)가 권장한,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노화를 맞이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1. 규칙적인 운동으로 통증 완화하기
오래된 부상 때문이든, 관절염 때문이든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는 다양한 통증이 찾아온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운동’이다. 규칙적인 운동은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 운동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은 수영, 걷기, 요가, 태극권 등 신체 충격이 적은 운동이다.

2. 주름 방지하기
주름은 우리의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으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흡연, 자외선 등이 주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 피부 노화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는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금연하는 것이 좋다. 또 피부 보습을 위해 선크림이나 모션 등 기초 화장품을 꾸준히 잘 바르는 것도 중요하다.

3. 근육 손실 줄이기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힘과 지구력을 잃는다. 엄밀히 따져보면 이는 노화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신체의 코어 근육의 운동량이 줄어들어 근육 자체도 잃게 된다. 나이가 들더라도 운동을 멈추지 말고 웨이트 트레이닝, 걷기, 정원 가꾸기, 수영과 같은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육 손실을 막는 것이 좋다. 하루에 30분은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나, 한 번에 하기 어렵다면 15분씩 두 번으로 나누어 하는 것도 좋다.

4. 숙면 취하기
나이가 들어도 깊은 잠에 들고 싶은 욕구는 변하지 않지만, 수면의 질에는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노화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잠드는 것이 힘들어지고 깊은 수면에 빠지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결과적으로 한밤중에 더 자주

깨게 된다. 카페인과 술은 이러한 문제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끊거나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5. 기억력 되살리기
기억력 감퇴는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이다. 일정 부분 노력을 통해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거나, 규칙적인 운동과 같은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질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역시 중요하다.

6. 체중감량
나이가 들수록 칼로리 소모량이 낮아져 체중이 불어나곤 한다. 과일, 채소, 단백질 중심의 식단을 짜고 설탕과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 또 과식하지 않고 적당한 양을 섭취하도록 주의할 기를 기울여야 한다.

7. 사회 활동으로 외로움과 우울증 극복하기
너무 뻘뻘하고 예측 가능한 일상이 반복되면 지루해지기 시작하면서 우울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또 자녀들이 멀리 이사를 가든지, 직장에서 은퇴를 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해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다. 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감정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여행을 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외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친구, 가족, 이웃과 대화를 하는 것을 일상의 일부로 삼는 것이 좋겠다. 애원동물도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강아지는 신체를 시키고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게 만들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좋다.

조성구 원장

한사랑병원



2025년 목회자 자녀 장학생 선발 공고

신월동교회(고신원 목사) 장학위원회에서는 다음세대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원하는 대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목회자가정의 대학생이 꿈을 이루고, 전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함

2. 신청자격

- 1) 2025년 1학기 현재 대학교 재학생
- 2)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소속 담임목회자 자녀

3. 선발인원

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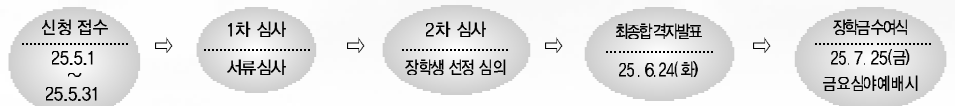
4.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목) - 31일(토)까지

5. 장 학 금

장학금 1,000,000원(1인)

6. 선발절차



7. 신청방법

네이버에 '신월동교회' [www.sinwol.kr] 검색해서서 '일반행정자료'에 기재된 한글 양식을 다운로드 후 아래에 메일 주소로 제출 (gospel4109@kakao.com)

- ① 신청서
- ② 출석교회 담임목회자 추천서
- ③ 성적증명서
- ④ 재학증명서
- ⑤ 가족관계증명서
- ⑥ 자기소개서(양식참고)
- ⑦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제출한 서류는 심사 및 장학생 선정 완료 후 일괄 폐기합니다.

※ 이 장학금은 나라를 지키다 순국한 (故)곽홍근 형제 가정부: 광성국 집사, 모: 장은경 권사에서 다음세대 일꾼 양성을 위해 후원하였습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신월동교회 장학위원회

담임목사 고신원 목사 | 장학위원장 김준경 장로